

보건복지 ISSUE & FOCUS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
Health and Social Affairs
www.kihasa.re.kr

제 319호 (2016-19)
발행일 2016. 07. 18.
ISSN 2092-7117

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30147)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(1층-5층) TEL 044)287-8000 FAX 044)287-8052

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 평가¹⁾



원종욱
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

-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방식을 이용하여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, 법안의 취지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임.
- 국민연금의 채권투자로 확보한 재원으로 투자한 사업의 효과로 2020년부터 출산율이 0.1(0.2) 증가하는 경우 2060년까지 누적적으로 64.6(129.3)조 원의 추가적인 보험료수입과 기금수익이 발생함.
- 그러나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59년 1년간 기금소진규모는 358.9조원으로 출산율이 2020년부터 0.1 또는 0.2가 올라간다고 해도 기금고갈을 1년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옴.
-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와 연계시키기 보다는 더 높은 차원, 예를 들어, “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절대인구수준 확보”와 같은 목표설정이 필요함.
-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.

1. 국민연금재정과 출산율

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은 5년마다 시행되는 재정계산의 결과로 가능하며 2018년에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음.

- 2013년에 시행된 제3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은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, 사용된 합계출산율 전망은 아래 <표 1>과 같음.

<표 1> 제3차 재정계산(2013년) 합계출산율 가정(중위 기준)

연도	2015	2020년	2025년	2030년	2035년	2040년
합계출산율	1.28(1.24) ²⁾	1.35	1.38	1.41	1.42	1.42

자료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(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), p.327.

1) 본고는 2016년 8월 발간예정인 현안보고서 『국민연금 채권투자를 통한출산율 제고정책 책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효과분석』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임.
2) 2015년 합계출산율

- 출산율 제고를 통해 기금소진 시점을 2060년보다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[표 1]보다 높은 수준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.
 - 그러나 제3차 재정계산에서 사용된 많은 변수들의 장기전망치가 2015년까지의 실적치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, 기금소진 시점이 2060년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2. 출산율 제고로 인한 보험료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제고

- 저출산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,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.
 -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채권투자형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주택건설 및 보육시설 확충을 실시하여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음.
 - 국민연금의 채권투자형식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실시되는 주택사업 및 보육시설 확충 효과로 인해 2020년부터 합계출산율이 제3차 재정계산 시 전망된 수치보다 0.1(0.2) 더 상승하는 단순한 가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 효과를 계산해 보았음.

〈표 2〉 2020년 합계출산율 0.1 증가분의 누적효과(20~40세 인구 증가규모)

(단위: 명)

연도	2040년	2045년	2050년	2055년	2060년
인구	32,186	193,013	345,494	482,538	600,548

주: 위 수치는 2020~2040년 기간의 출생아가 20세 이상이 되는 2040~2060년 인구 증가규모
 자료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(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) 자료 재구성

- 2020년부터 출산율이 올라가면 그로 인한 인구증가는 누적적으로 나타나며,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대한 기여는 이 출생아들이 성인이 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령에 도달하면서부터 효과를 나타냄.
 - 2020년 추가로 출산한 인구가 2040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, 출산율 0.1(0.2) 제고 효과로 인한 국민연금가입자의 증가는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의 증가로 이어짐.

〈표 3〉 합계출산율 0.1 증가 시 국민연금 누적 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 증가분

(단위: 십억 원)

연도	2040년	2045년	2050년	2055년	2060년
누적 보험료수입	26.1	1,206.6	7,653.6	24,805.5	58,668.7
누적 기금운용수입	1.3	70.0	514.9	2,084.0	5,963.1
총 수입 증가분	27.4	1,276.6	8,168.5	26,889.5	64,631.8

자료: 계산과정은 2016년 8월 발간예정인 현안보고서 『국민연금의 채권투자를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효과분석』 참조

주1) 기금운용수익율은 제3차 재정계산 시 사용된 가정을 적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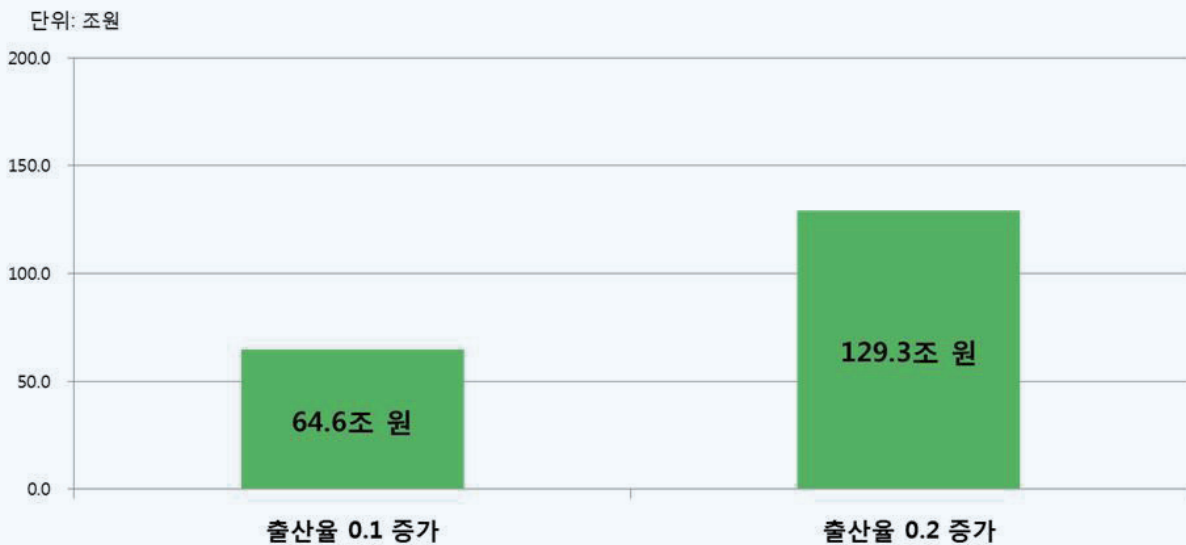
주2) 보험료수입은 증가하는 인구규모에 2015년 연령별 국민연금가입율을 적용하고 연령별 신고소득은 2015년 수준을 임금상승수준을 적용하여 인상시켰음.

3. 출산율 제고의 기금소진 시점 연장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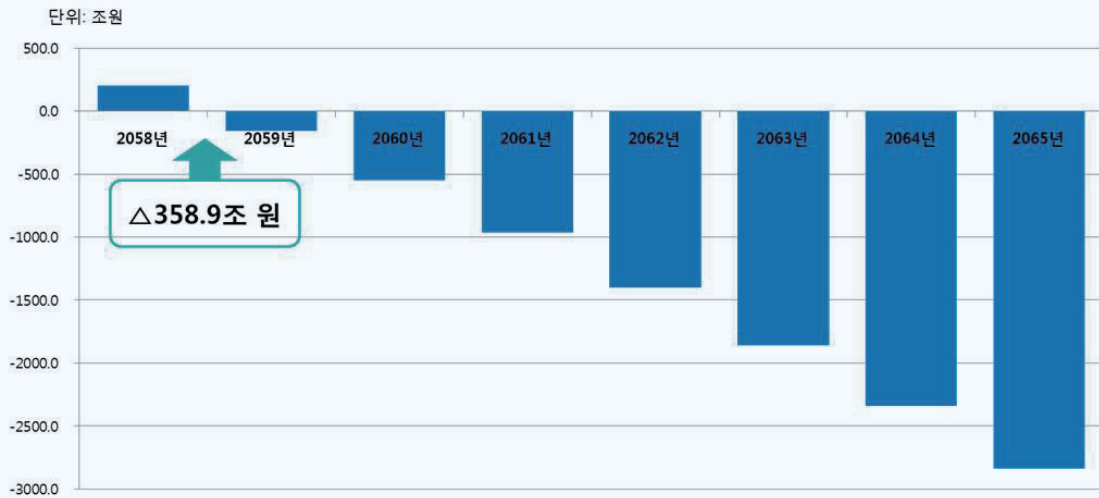
■ 국민연금의 채권투자형식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시행한 주택사업과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효과가 출산율을 0.2 올릴 수 있다면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임.

- 저자의 계산에 의하면 출산율 제고로 인한 국민연금수입 증가는 2060년 경상가로 64.6조 원(출산율 0.1 증가 시) 또는 129.3조 원(출산율 0.2 증가 시)으로 추정됨.
- 출산율이 2020년부터 0.2 추가로 증가하는 경우 제3차 재정계산 전망대로라면 2030년부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.61(1.41+0.2)이 됨.
-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계출산율이 1.47임을 감안한다면, 과연 실현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높은 수준임에 틀림이 없음.
- 출산율이 0.2 증가하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이나 이로 인한 보험료수입 증가분을 기금소진기의 기금소진규모와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- 2058년 기금이 적립된(+) 상태에서 2059년 소진 및 적자(-)로 전환되는 시점의 기금소진규모는 358조 9천억 원으로, 출산율이 2020년부터 0.2 증가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추가적인 수입은 1년간 기금소진규모와 비교하면 36%에 불과함.
- 2060년 경상가격이라고 해도 64.6조원과 129.3조원은 매우 큰 금액이며 국민연금재정에 양(+의 기여를 하지만,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에 절대적인 것처럼 알려지거나 기금고갈시점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
[그림 1] 출산율 0.1 증가(2020년)에 따른 국민연금수입 증가분(2060년 경상누적)



[그림 2] 국민연금 적립금 전망



주1): 2058년 기금적립금규모는 기금의 국공채투자잔액이 현금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되어 기금소진시점이 제3차 재정추계보다 1년 앞당겨지는 결과를 보임.

자료: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자료 재구성

4. 결론

-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출산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만, 출산율 제고 정책을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.
 - 출산율 제고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수립(예: 주권국가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절대인구규모 확보)을 위해 필요하며,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자원마련은 조세로 충당해야 함.
- 국민연금의 국공채에 대한 투자위험은 기금소진기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현금화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음.
 - 국공채시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국공채를 기금소진기에는 전액 상환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전망이다.
-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채권 투자비중(국공채 투자비중)을 계속 줄여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함.
 - 저출산정책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채권투자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투자된 국공채의 현금화가 어려워지는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고갈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.
- 주택사업과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 효과는 재정안정화를 해결하는 수준과는 크게 거리가 있음.
-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는 현재로서는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제4차 재정계산(2018년) 이후 보험료 인상이 시행되어야 함.

집필자 원종욱 (사회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문의 044-287-8227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<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jsp>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Policy